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제목:이름 있는 거지와 이름 없는 부자 성경:
누가복음16장 19-31절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현대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현대를 핥더라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25 아브라함이 이르되 애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26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27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28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29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30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어 만일 죽은 자에게

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
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눅
16:19-31)

-이 세상은 천국을 예비하는 곳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느냐로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됨.

-즉, 이 세상에서의 삶만이 다가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게 다라면 너무 불공평하지 않는가?

-죽음 이후가 궁금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증언하심.(아무도 예수님처럼 확
실하게는 말하지 못함.)

-(비유)이 세상의 삶은 씨앗과 같다. 이 씨앗이 죽음 이후에 싹이
나는데, 좋은 씨는 천국을 꽃 피우고 악한 씨는 지옥을 꽃피우는것과
같다. (바닷가 어부의 비유)

-나사로는 천국의 씨앗을 만드는 삶, 부자는 지옥의 씨앗을 만드는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다.

Why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살면서 천국을 예비하지 못했다. 그는 의
롭게 살지 못했다.

-부자는 나사로를 돌보지 않음. 나사로는 이름이 있는 사람. 알려진
사람. 틀림없이 부자와 연관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자는 나사로
를 내어쫓지 못했을 것이다.

-내어 쫓더라도 나사로는 문지기에게는 호통을 칠 수 있었을 것이
다. 나사로는 갈데가 없었을 것이다.

-당시 부자들은 먹던 고기를 상 아래로 던지는 습관이 있었고, 그
것을 개들이 먹었다. 나사로가 그런 음식을 먹었다.

-부자는 아마도 계략으로 나사로를 밀어내고 권세를 잡았을지 모른
다.

-아니면 서자였거나, 아니면 종의 자식이었는데, 그 종이 큰 공을 세워서 그 아들을 내어 쫓을 수 없었거나 등등. (아무튼 지옥에서도 심부름을 시킬만한 사이였다.)

-나름대로는 선을 베풀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보기에 악한 자였다. 그는 다른 불쌍한 자들을 돌볼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

-부자는 그 부로 자기의 쾌락만을 위해서 살면 죄가 된다. 부자는 그 부로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그는 더 능력이 있는 자이니만큼, 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한다.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는 하나님도 알고 있었다. 그는 사명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런데 지옥에 대해서 잘알지 못했다. 어렴풋이 땅 속이라는 점만 알고 있었으리라. 형벌의 장소임을 몰랐다.

-그가 행한 행위에 대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지옥이다. 그 형벌은 끔찍하다. 물 한 방울이라도 원하는 곳이다.

-반드시 댓가는 지불해야 한다.

-그는 제멋대로이고 방자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지옥에서 아브라함에게라도 반대하고 가르치려는 사람이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얼마나 심했을까? 아마 그는 나사로의 고난을 즐기는 자였을지도 모른다.

-그는 모세와 선지자, 즉 영적 지도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들었어도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 그는 오히려 영적 지도자들을 무시하고 자신의 부로 그들을 조종했을 것이다.

-그에게는 형제가 다섯이나 있는데 모두 자기와 같은 자들이었다. 하나님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들이 저렇게 살지는 않을 것인데, 그토록 교만하고 막살지는 않을 것인데...

-영적 지도자의 말에 아멘하지 못하는 자들은 설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더라도 그것을 거부한다. 그리고 반항한다.

-나사가는 왜 병에 걸렸는지, 왜 가난하게 되었는지 알 수 없다.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걸 보니 매우 훌륭한 일을 했다고 짐작할 수 있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부자를 무시하거나 그를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은 것 같다.

-그가 그 집을 떠나지 않은 것과 그의 이름이 거론된 것을 보면 그는 그 집에 중요한 인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만약 그 집을 떠났다면 그는 아마 원망했든지 미워했든지 할 것이다.

-그는 아마 중보기도 하기 위해서 그 집을 떠날 수 없었을지 모른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를 안고 있지 않았을까?

-나사로는 부자에게 끊임없이 어떤 선한 메시지를 전했다. 부자가 이제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가면 형제들이 믿을 것이라 하는 걸 보면 나사로가 형제들에게도 무언가 메시지를 평상시 전했다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통해서 이미 그 가정이 구원을 받도록 많이 애를 쓰셨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애쓰는 것 만큼 큰 일은 없다. 비록 그가 가난하고 병으로 고생하지만, 그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였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전도 제목: 천국복음 말씀: 마태복음 9장 35-38절

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9:35-38)

35.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심;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 사람들은 주어진 만남에 안주하려는 성향이 짙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만남을 기뻐하신다.

-새로운 만남이 새로운 생명을 탄생케 한다. 영적 생명.

-회당에서 가르치심;당시 회당은 가르치기에 가장 적합한 곳.

-오늘날 교회 예배당은 전도에 가장 적합한 곳. 누구든지 오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우리 교회는 복된 곳.

-선한 이웃 선린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진리가 살아있는 교회

-새 시대 새 교회

-따끈 따끈한 하나님의 음성이 항상 있는 곳

-아낌 없이 주는 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천국복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항상 복된 나라. 우리에게겐 이 세상의 만족이 다가 아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에서도 만족하며 산다.

-모든 병을 고치심. 모든병. 모든 병에서 나음을 얻자.

- 모든 약한 것. 몸이나, 정신, 영혼이 약한 것을 고치심.
- 특히 코칭을 통해서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고치심. 삶과 스타일까지 고치심.

36. 목자 없는 양.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양과 같다. 목자가 필요함. 목자가 없으면 편할 것 같지만, 집떠나면 고생이듯 목자를 떠나면 고생함. 인생채찍도 큰 고통, 지옥을 예상하게 만든다.

37. 추수할 영혼들이 많음.

38.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함. 천사들이 필요함. 천사들을 요청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함.